

새한, 수처리용 필터 생산설비 증설

역삼투필터 800만평방미터로 확대 ... 산업용 마이크로필터 소재 연구

날로 늘어가는 물 관리용 필터 수요에 부응기 위해 새한(대표 박광업)이 2003년 11월까지 역삼투필터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

새한은 생산설비 증설을 통해 역삼투필터 분야의 세계적인 종합 수처리 소재 생산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새한의 역삼투필터 생산능력은 한해 200만평방미터에서 800만평방미터로 400% 늘어나게 되며, 미국의 필름텍(Filmtec), 하이드러노틱스(Hydranautics), 일본 도레이(Toray) 등 세계적인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새한은 미국·중국·중동·유럽 등지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2003년 3000만달러 매출에 이어 2004년 4000만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삼투필터 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중인 산업용 마이크로필터 소재를 더욱 확대시켜 상하수처리용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필터 시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위주로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산업의 성장률이 떨어짐에 따라 필터산업의 성장동력은 제조공정의 공업용 수용보다 부족한 음용수 수자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 물 부족 위기와 수자원 확보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됨에 따라 매년 약 19%씩 성장하고 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부족한 음용수용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활용을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질 기준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필터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10>